

배포 일시	2022. 7. 18.(월)		
담당 부서 (총괄)	철도국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 김민태 (044-201-3970)
		담당자	사무관 김도한 (044-201-3971) 주무관 천무용 (044-201-3976)
보도일시	2022년 7월 1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18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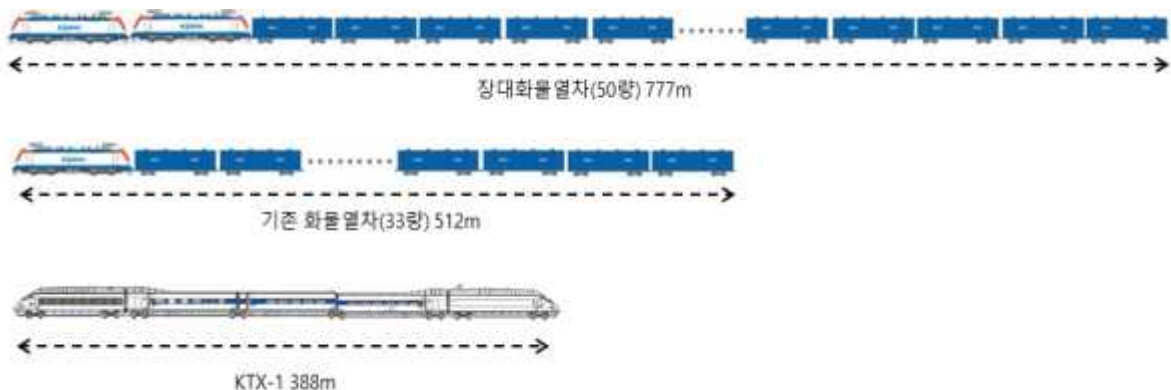
## KTX 2배 길이 열차로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만든다

- 현재 대비 1.5배 높은 수송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
- 향후 다양한 지원정책으로, 철도물류의 역할강화 지속추진 방침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, 이하 국토부)와 한국철도공사(사장 나희승, 이하 철도공사)는 KTX의 약 2배 길이(777m)인 50량 규모의 장대화물열차를 경부선 오봉역~부산신항역(402.3km) 구간에서 시험운행 한다고 밝혔다.

\* (일시/구간) `22.7.19(화), 04:30~ / 오봉역(출발)~김천역~동대구역(정차)~부산신항역(도착)

< KTX - 화물열차 길이 비교 >



□ 최근 고유가 등 국내·외 여건변화에 따른 도로운송비용 증가와 함께, 이례상황 시 대체수단으로써 철도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지만, 철도의 구조적 특성\*과 그로 인한 추가비용은 철도물류 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.

\* 출발지~도착지 간 단일수단으로 운송(문전수송) 불가 → 셔틀, 상·하역 발생

- 이에, 국토부는 「**전환교통 지원사업\***」 등을 통해 물류업계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을 경감하고 있으나, 철도공사의 운송수익 대비 높은 비용\*\*은 철도물류 지속가능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.

\* 철도운송에 따른 화주 등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보조하는 사업('10~)

\*\* (영업계수) = (영업비용)/(영업수입) = 160 ('21년) → 만성적인 적자구조

-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길이 1.2km의 80량 장대열차를 부산신항역~진례역(21.3km) 구간에서 시험 운행한 바 있으나, 1km가 넘는 길이의 열차를 운영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상용화에는 나아가지 못했다.

- 국토부, 철도공사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, 상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, 현재보다 높은 수송력\*을 지니면서, 우리나라 철도여건에 부합하는 50량 장대열차를 실제 영업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하기로 했다.

\* (현재) 33량 66TEU(약 800톤) 수송 → (장대열차) 50량 100TEU(약 1,200톤) 수송

- 이번 시험에 앞서서는 부산신항~진례(21.3km), 부산신항~가천(98.1km)을 운행하며, 운행안전성을 사전점검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했다.

- 국토부는 시험운행 이후, 경부선에 장대화물열차 대피선로 확충\*을 검토하는 등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

\* 여객열차, 화물열차가 동시 운행 시 여객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한 우회선로 필요

- 그 밖에, 국토부는 도로대비 철도의 실질적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,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도로-철도 운임차액의 전부를 보조하며,

- 수도권 ↔ 부산권 간선물류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, 피기백\*, 리퍼컨테이너\*\* 등 R&D를 통한 취급품목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.

\* 컨테이너 상·하역 없이, 컨테이너+트럭을 통째로 열차에 실어 수송하는 기술

\*\* 신선식품 등 냉장을 요하는 물품을 수송하기 위해 냉장장치가 결합된 컨테이너

**피기백(Piggy-Back) 화차**



**리퍼 컨테이너(Reefer-Container)**



-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“이번 시험운행이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육성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 면서,
- “물류망 다변화를 위한 철도물류의 역할 강화에 정부도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

담당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	김민태 (044-201-3970)
		담당자	사무관	김도한 (044-201-3971)
			주무관	천무용 (044-201-3976)
담당부서	한국철도공사 물류계획처	책임자	처 장	김범열 (042-615-4091)
		담당자	부 장	김영대 (042-615-4093)